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영화 '백두산'을 보고

12월 21일(토) 오후 2시, 서울 문화예술의 거리 종로구 대학로에서 영화 '백두산'을 관람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영사모)' 제60차 영화 비평 모임에서 4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보았는데 감동적인 영화였다. 올해 2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둔 영사모 지도교수 박태상(朴泰尙) 국문학과 교수의 열정과 실력, 특히 훌륭한 인품에 매료되어서 바쁜 연말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이렇게 좋은 모임의 기회가 아니면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도 자칫 지나치기 쉽다.

나는 십여 년 전부터 영사모에서 주관하는 영화 관람에 참가해왔다. 좋은 영화를 선택해서 본 후, 만찬과 함께 영화를 본 소감과 비평을 발표하는 시간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익한 인생과 사회 공부 시간이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시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는 영화 소감문인 칼럼을 몇 편 써서 신문에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박 교수의 개방적이고 소탈한 성품과 심층적이고 막힘없는 학식과 경험은 감동적이고 타(他)의 추종을 불허한다. 교육 경력 40년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더욱 빛나는 성취와 옹골진 행복이 가

득하시기를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기원드린다.

2007년부터 백두산이 휴화산이 아니라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이라는 주장들이 퍼져서 민심이 조금 흉흉하기도 했다. 제작비 260억 원을 들이고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두 배우 이병헌(리준평 역)과 하정우(조인창 역)가 연기 호흡을 맞춘다. 배우 마동석과 전혜진, 배우지도 자기 배역을 잘 소화해서 보여주었다. 12월 19일, 개봉 첫날 관객 46만명을 동원하여 12월 개봉 영화 사상 최대 인원이고, 천만 관객 가능성이 보이는 영화다.

영화는 백두산이 1차, 2차, 3차 폭발을 해서 서울 시내와 강남역 부근 고층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고 한강이 해일로 넘치는 현장감과 역동감이 넘친다. 곧 닥칠 백두산 4차 화산 폭발, 마지막 백두산 폭발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킬 사상 초유의 대형 재난이다. 이 마지막 백두산 화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북한 쪽 백두산에서 지하갱도 안으로 들어가서 핵 폭발을 시켜서 백두산 폭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질학자의 학설에 따라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특전사 부대원들의 이야기이다.

출산을 앞둔 아내를 남겨 두고 출산 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남한 특전사 대위 조인창

은 북파(北派)되어서 이중 간첩이라는 인민무력부 장교 리준평과 접선에 성공한다. 조인창과 리준평은 아군 같기도하고 적군 같기도 한 애매한 불신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한 험난한 길을 나선다. 가는 도중에 화산 폭발로 죽어가는 아내와 딸 순옥을 만나서 비정한 것 같던 리준평은 평범한 남편과 '딸 바보'임을 보여 준다.

많은 위기와 시행착오를 거치고 백두산 지하갱도 안에서의 핵 폭발을 시켜서 남과 북 모두를 휩쓸어버릴 백두산 마지막 폭발을 막아낸다. 민족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딸 순옥을 부탁한다면서 지하갱도 안에서 탈출을 거부하고 함께 사라지는 리준평은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무사 귀환한 조인창은 아이를 출산한 아내와 딸 순옥, 네 식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내가 본 영화 소감은 첫째, 우리 민족은 공동 운명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오천년 역사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 외침과 내란을 이겨낸 위대한 민족이다. 가깝게는 일제 식민지배도, 해방도, 전쟁도 함께 겪었다. 큰 사변이나 자연 재난 앞에서 북한은 죽고 남한은 산다는 법이 없다. 너는 죽고 나만 산다는 보장도 없

다. 698년에 건국하여 926년에 멸망한 대제국 발해의 멸망 원인을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발해 멸망 연대인 900년대에 백두산 폭발이 많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생활 환경 변화로 통치체제와 국력의 약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란의 침입은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두 동강난 한반도, 남녘 북녘 8천만 동포인 우리는 하루 빨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단군조선부터 수천 년 같은 피와 같은 말을 이어온 배달민족이다. 백두산 화산 폭발 같은 대형 자연 재난도 그렇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 적대와 대결, 비용과 비정상을 당하고 있는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힘을 키워서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70여 년 뒤론 아픈 철사 허리띠'를 어서 빨리 풀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한(恨)이요, 비원(悲願)이다.

셋째, 이념이나 국적 등 모든 것을 떠나서 자기의 뿌리인 가족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TV조선의 '모란봉 클럽'이나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에 출연하는 탈북민들이 힘든 북한 생활과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털어놓으며 웃고 떠들다가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가 훌쩍이며 눈물짓는다. 3만명 탈북민들은 보호받아야 할 통일 선봉대인 동시에 신(新) 이산가족이다. 70여년 서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산가족들과 탈북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社說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강화돼야

체포·구속·형 집행 등으로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의 자녀 인권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가 작년 5월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 제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를 이들 기관이 모두 수용했다.

앞서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모든 형사법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능한 한 아동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체포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

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법원조사관을 총원·확대 배치해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실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5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미성년 자녀의 11.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만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보호는 민주국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조처다. 관계기관은 이들의 인권보호에 적극참여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방학, 가정 내 화재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절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방학 기간은 학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안전의식도 해이해지기 쉬워 화재나 화상, 모서리 넘어짐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 내 안전교육을 더 절실하다고 하겠다.

우선, 난방기 등 전열기구 취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철을 맞아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해 성냥·라이터 등은 물론 어린이 혼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엄마, 아빠와 함께 각종 전기 기구를 점검하고 119신고, 소화기 사용법, 피난요령 등 화재발생시 대

처요령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 주는 것도 자녀는 아이에게 안전의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전열기구 주변에 안전장치를 하고 장난도 삼가야 하며,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직접 따르거나 밥솥의 스팀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를 주어야겠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